

‘나’만의 소통 페이지

따로 앱 설치가
필요 없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

원하는 배경색
및 프로필이
가능한
커스텀 기능

대화하는
형식의 친근한
유저
인터페이스

단순한
질문 및 답변
삭제 기능

기획에 대한 개요 및 요약

2023년,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수많은 SN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유, 익명의 질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여 소통에 편리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페이지로 asked와 푸송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각의 사용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점과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되고자 하는 점을 모아 업그레이드된 소통 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PROBLEM

1.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불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sked 앱과 푸송 페이지 둘 다 사용해본 사람들에게 각각의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01

푸송의 장점은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에요. 또 프로필 사진/색상(본인만 적용)만 바꿀 수 있는 제한적인 애스크와 다르게 배경/색상/프로필 변경 (링크로 들어온 모두에게 적용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또 애스크는 질문/답변이 일방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푸송의 대화하는 UI는 매력적이에요. 답변을 하거나 거절할 때도 단순하고요.

푸송의 단점은 광고가 너무 많이 뜨고 오류가 장난아닌 점이에요. 최근 큰 장점이었던 커스텀 기능은 유료화 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점 때문에 애스크로 이동했어요.

02

지금 푸송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단점은 들어갈 때 마다 유료화 모달창이 뜨는 게 사용에 있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애스크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원래 애스크 말고 푸송을 사용했던 이유는 앱 설치가 귀찮았는데 푸송은 그게(설치) 필요 없어서였어요. 또 애스크에 비해 푸송은 더 단순하고 친근한 이미지 인 게 좋아서 사용을 시작했어요.

03

푸송의 장점은 그 사람과 연락(소통)하는 것처럼 답변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에 반해 애스크는 궁금한 거만 묻고 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푸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푸송의 단점은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점이에요. 들어가기만 해도 유료화 광고가 계속 뜨고 잦은 배너 광고는 보기가 싫어요...

2. 실 사용자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장단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장점

- 따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모두에게 보이는 커스텀 기능
- 대화하는 느낌의 유저 인터페이스
- 단순하고 친근한 이미지, 기능

단점 (개선할 점)

- 잦은 광고 (들어갈 때마다 뜸)
- 오류가 많음
- 질문 삭제/수정의 번거로움

3. 제가 처음 기획했던 것에서 기존 어플들의 불편한 점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추가했습니다.

어플 A (푸송) - 모달창으로 지속되는 광고 (오늘만 보지 않기, 다신 보지 않기 등의 선택사항도 없음)

어플 B (애스크) - 질문 삭제가 번거로움 (답변완료 창에서 답변 삭제하기 - 새 질문 창에서 답변 거절하기 - 거절 질문 창에서 답변 삭제하기 - 답변을 삭제하겠습니까? 모달에서 삭제하기의 총 4번의 과정 필요)

애스크와 푸슁의 UI 비교

다음주는 애스크와 푸슁의 UI를 비교하고 제가 만들 어플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예정입니다.